

전라도·경상도 벽을 허물고 정을 쌓았다

“전라도 손맛·인심 짝이네”

전남 농수축산물 부스 28곳 문전성시

전남지역 청정 농수축산물이 대구에 상륙,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영호남문화대축전이 열린 대구 두류공원 인라인스케이트 광장엔 고흥(미역)·진도(홍주)·보성(녹차)·신안(전일염)·영광(모싯잎 송편) 등 전남지역 농수축산물 부스 28개가 마련됐다.

이들 부스엔 행사 종료 직전까지 대구·경북지역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품질과 맛이 좋고 값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인식이 널리 알려지면서다. 나주(배) 부스는 애초 예정일보다 하

미역·녹차·천일염·김치 등

“품질 좋고 저렴” 입소문

나주배 400상자 조기품절

루 빠른 지난 19일 문을 닫았다. 준비한 물량(배 200상자)이 하루 만에 동이 나면서 다음날 추가로 200상자를 더 주문했으나 이미저도 다 팔렸기 때문이다.

해남 부스에선 지역에서 직접 재배·수확해 담은 해남 김치가 전시·판매됐는데, ‘전라도 김치 최고’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이를 구입하려는 지역민들로 북

새등을 이뤘다.

완도와 무안 부스에서 판매한 김과 돌김도 대구·경북 지역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각 부스마다 마련된 향토 먹을거리 등 시식·시음 코너도 전라도의 손맛과 넉넉한 인심을 맛보려는 참가자들로 북적였다.

참가자들은 시식·시음 코너에서 맛을 본 뒤 너나 할 것 없이 “역시 전라도 맛이 최고”라고 엄지손가락을 추켜세웠다.

앞서 지난 18일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등은 각 부스를 둘러보면서 시식 체험을 한 뒤 해남 김치와 속덕 등을 구입했다.

/대구=이종행기자 golee@

“국민대통합 시대를 열자”

박지원·우윤근·임내현·이병석 의원 등 ‘영호남 상생포럼’ 회원 대거 참석

지난 18일 열린 영·호남문화 대축전 개막식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우윤근·임내현 의원 등 영호남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영호남의 만남을 통해 지역을 벽을 극복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해 국민대통합의 시대를 열어가자는 것인데, 이들 국회의원이 행사에 참석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들 의원은 지난해 10월 발기한 ‘영호남 상생포럼’ 회원들이다.

로 구성된 ‘영호남 상생포럼’은 대한민국 사회의 지역갈등 및 세대갈등 진단을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효과적 방안을 모색하는 토의기구다.

이들은 지난해 ‘영호남 상생포럼’ 발대식 이후 국민대통합 시대 건설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이들 중엔 대구와 각별한 인연을 가진 의원도 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장(1997년)과 대구고검 검사장(2003년)을 지낸 임내현 의원은 영호남 화합차원에서 경북고 명예졸업생 1호로 선정됐다. 이후 그는 해

마다 열리는 동문체육대회에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

또 박지원·우윤근 의원은 새누리당 경북지역 의원들과 새정연 전남지역 의원들로 구성된 ‘동서화합포럼’ 회원들로, 양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윤근 의원은 이날 개막식에서 “이번 영호남문화대축전은 지역갈등과 상생발전을 위한 주역”이라며 “영호남이 하나로 뭉쳐 국민대통합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전라도 인심이란게요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18일 인라인스케이트 광장에 마련된 해남 부스에서 전라도의 넉넉한 인심과 손맛이 어우러진 해남김치를 맛보고 있다.



상생장터 홍보관 개관

상생장터 홍보관 개관식 직후 참가자들이 홍보관에 전시된 영호남 지역 특산물을 둘러보고 있다.

지난 18일 대구 두류공원 인라인스케이트 광장에서 열린 ‘영호남 상생장터 홍보관 개관식’에서 권영진 대구 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박지원·우윤근·임내현 의원(이상 새정치민주연합),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 여창환 매일신문 사장 등 내빈들이 ‘영남·상생·호남’이라고 적힌 ‘축하 딱’ 절단식을 하고 있다. 이날 축하 딱은 나주·경북 울진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로 만들어졌다.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영호남 특산물 다 모였네

◀18일 영호남 상생장터 홍보관 개관식 직후 참가자들이 홍보관에 전시된 영호남 지역 특산물을 둘러보고 있다.



화개장터 연주 18일 대구 두류공원 인라인스케이트 광장 특설무대에서 3인조 그룹인 울랄라시스터즈가 영호남 상생을 노래한 조영남의 ‘화개장터’를 부르며 통기타 연주를 하고 있다.



양성평등 플래시몹

대구지역 여성 공무원·시민단체·가정주부 등 200명으로 구성된 플래시몹공연단이 18일 개막식에 앞서 음악에 맞춰 가정폭력 등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